

국회간 광주·전남 성난 민심 “탄핵 때까지 싸울 것”

광주·전남 지역민 상경 투쟁 동행기

“산자여 따르라.”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탄핵 버스’에 이른 아침부터 몸을 실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은 탄핵버스를 타기 위한 지역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1000여명의 지역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마련한 서울 상경 ‘탄핵버스’ 28대에 차례차례 올랐다.

상경길에 나선 지역민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떡과 과일 등 간식거리를 나누면서도, 사투 비장한 얼굴로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성은(여·26)씨는 “직장인으로서 귀중한 휴일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국회에 가기로 했다”며 “5·18정신을 배워온 광주 시민 입장에서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를 끝장내겠다는 의미다. 학생 때 박근혜 탄핵 집회에도 참여했지만, 8년만에 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러 서울에 갈 줄은 몰랐다”고 탄식했다.

차분했던 버스 안 분위기는 버스가 출발할 즈음 화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가 흘러나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탄핵버스 28대 올라타고 상경 추위 속에도 “탄핵! 탄핵!” 외쳐 투표 불참 국민의힘 해체 촉구 광주 향한 버스 안 분노 터져나와

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자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다. “어이가 없다. 계엄을 선포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던 다나,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광풍 숨어놓고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한 시민은 “우리 당에 맡기겠다는 건 또 뭐냐. 결국 죽어도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전날까지 탄핵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지역민들은 상황이 시각각 변하자 서울을 향하는 내내 버스에 설치된 TV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광주에서 출발한 탄핵버스는 6시간여만에 서울 여의도에 도착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면서 정치할



7일 오후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도착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탄핵버스’에서 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로 향하고 있다.

곳을 찾지 못한 버스는 올림픽대로 갓길에 겨우 차를 세웠다.

대rob면에 내린 지역민들은 답을 넘고 험한 길을 헤치면서 국회로 향했다. “윤석열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동행한 장애인 활동가와 여성, 어르신들의 손을 잡았다.

서울시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 자리잡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수많은 인파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윤석열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유담(여·25)씨와 함께 상경한 양세진(여·25)씨는 몸에 ‘윤석열 체포·탄핵·구속’,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선물은 윤석열 탄핵이야’ 등이 적인 팻말을 걸었다.

양씨는 “탄핵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감에 눈물이 난다”면서도 “어떤 정치인도

결국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 믿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광주는 44년 전의 기억으로 잠시 멈춰야 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6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지 않아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곳곳에서 탄식이 나왔다. 지역민들은 국회를 아우렀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오후 7시 광주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혹시 모른다”, “조금 더 국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며 오후 8시까지 자리를 지켰다. 결국 8시 넘어 광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는 화를 식이지 못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투표마저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고 화가 나고 허탈했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광주시민단체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글·사진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5·18민주광장 운집 광주시민 탄핵 촉구 불길 여전히 뜨겁다

친구·가족·동료와 함께 시위

광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으로 불발되자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8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경찰 추산 1500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 ‘징하, 내려와라’ 등 직접 제작한 손팻말부터 KIA타이거즈 응원봉이나 아이돌 응원봉 등을 쟁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에 맞춰 흔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문구가 쓰인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손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일인 지난 7일 5·18민주광장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상무관 앞 가설무대부터 분수대를 넘어 오월 시계탑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들은 기온이 2~4도로 떨어지고 오후 8시 넘어 진눈개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아랑곳않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

회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호명하자 광주 시민들도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빨리 돌아와”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김정원(19)양은 친구 4명과 함께 민주광장에 나섰다. 올해 수능을 치르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김양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 5·18민주화운동의 고장 광주 시민으로서 잠을 수가 없었다”며 “탄핵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나왔다.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민(42)씨와 아내 김효정(42)씨는 아들 최동주(8)군의 미래를 위해 아들의 손을 잡고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최씨는 “TV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계엄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세상이라니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아이가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참여하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현장을 보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철도 파업 나흘째...열차 감축 운행 불편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8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려던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체제를 당분간 지속 운영한다고 8일 밝

혔다. 이에 따라 호남선, 전라선의 여객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50~60%의 수준, 화물 열차는 평소의 22% 수준으로 유지된다.

코레일이 공개한 열차운휴안내표에 따르면 평일 기준 KTX, 일반열차를 포함해 호남선은 하루 96

회 중 36회를 감축 운행하며, 전라선은 하루 64회 중 24회 운행을 중단한다.

코레일은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거나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발송하고 있으며, 운행 중단된 승차권은 전액 환불 조치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 반환·변경 시 위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